

출제 의도

1. 사회 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특징 비교
2.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3. 일탈 행동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4. 자료수집방법-실험법에 대한 이해
5. 사회학적 개념 추론
6. 노사 갈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7. 연구 윤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
8. 노년층 가구의 빈곤 유형 분석 및 추론
9. 사회 유형별 상대적 특징 비교
10. 사회 집단에 대한 이해
11. 사회 변동에 대한 관점 이해
12. 가구주 성별 빈곤 유형 분석 및 추론
13. 문화 관련 개념 추론
14. 계층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15. 문화 변동의 결과에 대한 이해
16.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17.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
18.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해
19. 관료제에 대한 이해
20. 사회 이동과 계층 구조 분석 및 추론

E 직접 연계 문항

○ 총 7문항, 직접연계율 35%

3. 지문 - 수완 41p 심화학습 테마1, 2 반영
10. (가) - 수완 53p 10번 지문 반영
11. (가) - 수완 122p 8번 지문 반영
14. (가), (나) - 수완 73p 심화학습 테마1 반영
15. (나) - 수완 67p 심화학습 테마1, 68p 1번 지문 반영
18. 지문 - 수특 126p 심화학습, 131p 6번 지문 반영
19. (가), (나) - 수완 48p 심화학습 테마2 반영

주요 문항 해설

- 꼼꼼하게 피드백해서 수능까지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 주요 문항 외의 질문은 이 해설지가 올라온 글의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이하, 상빈=상대적 빈곤 (가구), 절빈=절대적 빈곤 (가구)
길게 늘여서 쓰면 되레 헛갈릴까봐 흔히 쓰는 줄임말 사용하지 않음.

8.

[정답] ② L, C

[해설] 아래는 (가)와 (나) 조건에 따라 설명을 돕기 위한 표
(나)에 따르면 80년 절빈율>상빈율, 00년 절빈율<상빈율이므로.

	상빈율	절빈율
1980	10	12
2000	20	8

- 가. 상빈율은 2배가 되었지만 전체 인구의 증감을 모르기에 상빈수 변화는 알 수 없다. 즉 같아졌거나, 감소했을 반례가 존재하기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나. 두 시점 사이 상빈율과 절빈율이 교차하기에 옳은 설명이다.

지나가는 얘기

L선지는 작년 9월 라플라스를 빙의했던 평가원의 소위 '일반적 국가의 소득분포 연속론'의 수정판이다. 상빈선과 절빈선이 같다면 상빈율과 절빈율은 같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평가원은 이러한 역명제를 내놓고 이익제기에 대한 논거로 '일반성'을 내세웠다. 사실상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상빈율=절빈율→상빈선=절빈선'이라는 명제가 옳지 않을 여지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평가원은 이익제기를 기각했다. 그 후로 그 선지는 모습을 감추었다. 이번 9월 모평도 마찬가지였다.

- 다. 절빈가구이면서 상빈가구가 아닌 비율은 2%에서 0%로 감소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라. 80절빈[°]율(88%)>00상빈[°]율(80%)이지만 그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의 증감을 모르기에 상빈수 변화는 알 수 없다. 즉 두 시점 사이 절빈수와 상빈수는 같아졌거나, 증가했을 반례가 존재하기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12.

[정답] ⑤

[해설]

※이하, 여가구=여성 가구주 가구, 남가구=남성 가구주 가구

- ①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상빈가구가 절빈가구에 속한다. 따라서 갑국의 모든 절빈가구가 상빈가구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전체 절빈율은 감소했으나 전체 절빈수가 증가했다는 것과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것에서 전체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가구와 남가구의 비율이 주어져있어서 여가구, 남가구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상빈율이 감소하고 남상빈수는 증가한 상황에서 2000년, 2010년 두 시점의 남상빈수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남상빈율은 감소했으나 남상빈수가 같거나 커졌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상빈율이 올랐고 전체 여가구수 또한 증가했으나 두 시점의 여성 빈가구의 총소득 증감은 알 수 없기에 평균 소득의 증감 또한 알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여가구에서 상빈가구 대비 절빈율은 9/6에서 8.5/10로 감소했다. 따라서 증가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갑국 전체에 대한 질문이니 설명을 돕기 위해 표.

		2010
전체 가구	상빈율	9.25
	절빈율	7

절빈선 이상∩상빈선 미만인 비율X4 (2.25x4=9%)
< 상빈율 (9.25%) 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

[정답] ① ㄱ, ㄴ

[해설] 아래는 (가)와 (나) 조건에 따라 설명을 돕기 위한 표

부모 \ 자녀	상	중	하
상	20	A	10
중	15-A	15	15
하	5	5	15

- ㄱ. 유입된 사람은 하층(25%), 중층(최소5%~최대20%), 상층(최소5%~최대20%)으로 하층이 가장 많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ㄴ. 하강(최소25%~최대40%), 상승(최소10%~최대25%)이므로 세대 간 하강이동을 경험한 사람은 세대 간 상승이동을 경험한 사람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ㄷ. 대물림 비율(50%)이므로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50%). 따라서 대물림 경험한 사람과 세대 간 수직이동을 경험한 사람 수는 같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ㄹ. A자리가 0이면 부모세대의 계층구조는 상:중:하=30:45:25으로 다이아몬드형이고 자녀세대 계층구조는 상:중:하=40:25:40으로 모래시계형으로 보다 계층이 양극화되어있다. 이로 인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